

# 국내 손보사 10곳... 군 입대자 보험료 올려

### 김해영 의원, 금감원 '병역의무 이행 통지 보험료 인상 현황' 1987건 보험료 인상·연간 3457만원 추가 부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보험가입자의 군 입대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간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MG손해보험·농협손해보

험·AIG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대로 인해 직업위험등급이 내려갔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 보험사들은 직업위험등급 1급 이던 이들을 입대와 동시에 2등급으로 낮췄다. 만 20세의 남성의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직업위험등급 1급 대상자는 연 보험료 2만8000원을 납부

한다. 2급은 3만8200원을 낸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군에 간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그간 금융감독이 내놓았던 판단과도 어긋난다. 금감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직업·직무의 변동으로도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 역시 불합리하다고 해석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의 청년이 의무적으로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삭감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올해 안으로 명확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 하림 피오봉사단 4기, 요리 아카데미 해단식 성료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으로 구성된 '피오봉사단 4기'가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입구에 위치한 요리 아카데미에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지난 7개월간 동물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던 활동이 담긴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하림 정음공장과 광명동굴, 속리산국립공원 등에서 촬영한 봉사활동 현장 사진을 활용해 '나의 다짐나무' 만들기 활동도 진행했다. 각자 사진을 다짐나무에 매달며 지난 활동들을 되새기고, 향후에도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작성했다. 특히 이번 해단식은 하림의 친환경 캠페인 '프리미엄 브랜드 자연실록' 제품을 활용한 요리수업으로 마무리 돼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문 요리강사와 함께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치킨 카레 그라탕'과 '닭고기 롤 샐러드' 등 색다른 닭고기 요리를 직접 만들었다.

하림 피오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하림의 이문용 대표는 "그동안 피오봉사단 4기로서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힘써주신 소비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쿠키를 래스와 함께 해단식을 갖게 됐다"며 "그간 하림과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앞으로 동물사랑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림 피오봉사단은 지난 2014년에 발족한 이후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인 하림의 대표 CSR 프로그램이다. 피오봉사단은 매년 3월 하림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rimmarket)를 통해 소비자 봉사단을 모집하며, 평소 동물을 사랑하고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피오봉사단 단원들에게는 봉사활동 점수 부여 및 하림 선물세트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날 해단식에 참가한 하림 피오봉사단 4기 서청화 씨는 "집에서는 닭고기를 주로 삼계탕이나 닭볶음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아이들과 새로운 닭고기 요리를 배워볼 수 있어 재미있고 유익했다"며 "하림 피오봉사단 4기로 활동하며 깨달은 동물복지와 환경감사와 활동의 중요성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급할인... 시민 여러분들 힘내요'

### 익산원예농협, 화목한 아침장 등 365일 할인행사 진행

농산물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이 우리농산물 관료화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장한 모현동 도서관 인근 하나로마트에서 시행하는 '익산시민 모두 힘내요 특급할인시리즈' 행사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은 "익산시민 모두 힘내요 특급할인시리즈"는 말 그대로 다양한 농수축산물과 공산품들을 번갈아 가며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화목한 아침장' '돈키우테 수요일' '금토일 주말장'으로 나누어 365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은 "익산시민 모두 힘내요 특급할인시리즈"는 말 그대로 다양한 농수축산물과 공산품들을 번갈아 가며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화목한 아침장' '돈키우테 수요일' '금토일 주말장'으로 나누어 365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돈키우테 수요일'은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에 최고품질의 국내산 안패지를 할인판매하며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에는 총체보리한우삼소 1+등급이상의 쇠고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다. 매주 수요일에는 등심이나 국거리, 불고기거리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와 돼지고기의 부위위주로 평소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는데 하루종일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금토일 주말장'은 주말 가족행사나 나들이 계획이 있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10가지 이상의 행사상품을 선정하여 판매하는 행사이며 행사 중 '깜짝세일'과 '이벤트'는 하나로마트를 찾은 고객들의 신선한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금토일 주말장'은 주말 가족행사나 나들이 계획이 있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10가지 이상의 행사상품을 선정하여 판매하는 행사이며 행사 중 '깜짝세일'과 '이벤트'는 하나로마트를 찾은 고객들의 신선한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기능장 44명 배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7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44명의 기능장을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7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44명의 기능장을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용접 부문에 비롯해 에너지와 배관, 가스, 주조, 위험물, 제강 등 7개 부문에서 기능장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내 최초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직원들이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에너지와 배관, 전기, 가스, 용접 등 5개 부문에서 기능장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상용보전부 이도수씨는 이번엔 위험물 부문에 추가 합격함으로써 회사 내 최다 기능장 보유자가 됐다.

또 기능장 합격자에게는 회사 차원에서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선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 공부 모임도 활성화돼 있는 점도 한몫했다.

전주공장은 지난 2011년 5명, 2012년 12명, 2013년 14명, 2014년 9명, 2015년 12명, 2016년 37명의 기능장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의 기능장을 배출했다.

전주공장은 이번 추가 배출로 주력 생산품목인 중대형 상용차의 제품 품질이나 완성도 등 대외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규 18명 등 44명의 기능장을 추가로 배출함에 따라 총 103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게 됐으며, 전체 보유 기능장 타이틀 수도 기존 130개에서 174개로 늘어났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우수 기능인력 육성을 통한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능장, 품질명장 등 인재 양성을 위해 회사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 계좌이동·통합관리 이용시간, 밤 10시까지 확대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변경·해지서비스인 계좌이동서비스와 소액 장기미사용 계좌의 잔고이전·해지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시간이 현재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된다.

계좌를 변경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대상은 예금상품 이외에 은행에서 가입·투자한 상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오후 10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 10월 시행 이후 9월말까지 1767만명이 이용했으며 1404만개의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변경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대상은 예금상품 이외에 은행에서 가입·투자한 상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소비자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약 이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국민주를 조회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799만명이 이용해 537만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448억원을 정리했다. /뉴스시스

## 외담대 180일→90일로 단축

### 금감원 "자금난 해소·경기활성화 기여할 것"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가 2019년 5월부터 현재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외담대 만기를 9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울러 외담대 정보공유 확대도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시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외담대 만기를 현재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등을 덜어주고,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기업별 외담대 잔액이나 한도 등 정보를 공유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외담대는 대기업이 물건을 납품해준 중소기업에 바로 현금을 주지 않고 외상매출채권 확인서를 써주면 중소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 원금은 만기에 대기업이 갚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물건을 납품한 뒤 바로 현금을 받는 것과 비

대출 원금은 만기에 대기업이 갚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물건을 납품한 뒤 바로 현금을 받는 것과 비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